

설움 딛고 승격한 광주FC의 1부 도전... "실력으로 평가"

이정효 "작년 K리그2 미디어데이 때 '개무시' 당해"
"우리나라는 시기하고 안 되길 바라는 사람 많아"
"서울대 학생은 서울대 나온 교수만 가르쳐야 하나"

프로축구 광주FC가 설움을 딛고 1부 리그에 도전한다. 같은 K리그2(2부 리그)에게도 무시를 당했던 광주FC는 이제 1부를 누비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편견을 깨는 일에도 도전한다.

이정효 광주FC 감독은 8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23 동계 전지훈련 미디어 캠프에서 지난해 K리그2에서 당한 설움을 뒤늦게 털어냈다.

이 감독은 "웃기더라. K리그2 미디어데이 때

는 '개무시' 당하는 느낌이였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다"며 "저희 선수들이 동계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초짜 감독이 와서 한다가 팀 자체를 아예 개무시했던 느낌이라 안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2부에서 우승하고 1부로 승격하니)지금 또 시험대라고 한다. 강등을 걱정하기도 한다"며 "우리나라는 참 칭찬에 인색하다. 잘 하면 '잘 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기하고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 감독은 스타플레이어 출신 감독이 아니다. 이 감독은 부산에서만 1999년부터 9년간 뛰며 222경기에 출전해 13골 9도움이라는 평범한 성적을 거뒀다. 이 때문에 프로축구 무대에서 적잖은 설움을 겪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감독은 이름값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양복을 입고 나온 이유를 묻자 이 감독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저는 계속 잘 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 정서는 서울대 학생은 서울대 나온 교수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 가르치면 되는데"라고 지적했다.

또 감독으로서 더 성장하겠다는 야망을 드러냈다. 이 감독은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선수들에게도 큰 꿈을 가지라고 한다.



자기한테 자신이 없으면 그런 꿈을 못 꾸다"며 "저도 편하게 입으면 되는데 편하다 보면 어떤 일"에 있어서 최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슬비기자

서울 합류 황의조-전북 잔류 조규성, 어린이날 빅매치

K리그 무대에서 첫 맞대결 예정
대표팀 주전·유럽행 좌우 전망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두고 다투는 황의조(31)와 조규성(25)이 프로축구 K리그 무대에서 만난다. 두 선수의 첫 맞대결은 어린이날 성사될 예정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노팅엄 포리스트 소속인 황의조는 임대를 떠났던 그리스 리그 올림피아코스에서 적응에 실패한 뒤 K리그 FC서울에 합류했다.

황의조는 6개월간 서울에서 뛰며 이를 발판으로 프리미어리그 입성에 재도전할 방침이다.

유럽 진출설이 파다했던 조규성은 소속팀인 전북 현대에 잔류했다. 조규성은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가나전에서 2골을 터뜨려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조규성은 스코틀랜드 셀틱, 독일 마인츠 등 유럽 구단들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지



만 전북의 설득 끝에 일단 K리그에 잔류했다. 셀틱은 결국 조규성 대신 수원 삼성 공격수 오현규를 영입했다.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에서 뛰게 된 두 선수는 이제 K리그에서 자존심 대결을 펼치게 됐다. 황의조와 조규성 모두 올 여름 유럽행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라 개막 후 상반기 성적이 유럽 진출의 발판이 될 수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두 선수 간 맞대결은 실력을 견줄 적절한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전북의 맞대결은 오는 5월5일 어린이날 서울

드컵경기장에서 리그 11라운드로 열린다.

앞선 10경기에서 득점포를 노릴 두 선수는 리그 11번째 경기에서 진검승부를 할 전망이다.

어린이날은 많은 K리그 팬들이 경기장을 직접 찾을 수 있는 휴일이다. 황의조와 조규성의 격돌은 K리그 흥행 카드로도 제격이라는 평가다.

국가대표팀은 물론 K리그와 유럽 진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 황의조와 조규성의 맞대결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뉴스



ESPN "류현진 3승 예상...토론토 선발진, 30팀 중 8위"

MLB 최강 선발은 뉴욕 양키스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메이저리그(MLB) 2023시즌에서 3승을 챙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SPN은 7일(한국시간) 류현진이 MLB 2023 시즌에서 3승4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30개 구단 중 8번째로 강력한 선발진을 갖췄다고 봤다.

1~3선발은 탄탄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뉴욕 메츠에서 크리스 배시를 합류한 토론토 선발진은 잠재적 20승 선발을 세 명이나 갖췄다고 평가받았다. 케빈 가우스먼을 23승 투수로 지목하면서, 알렉 마노아와 크리스 배시를 22승 선발로 꼽았다. 유력한 1~3선발의 예상 승수가 모두 20승을 상회했다.

류현진과 4~5선발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 호세 베리오스는 13승, 기쿠치 유세이는 7승, 네이트 피어슨은 5승, 미치 화이트는 2승 전력으로 꼽았다.

토론토는 MLB 30개 구단 중 8위 전력으로 전망했다. 토론토가 속한 아메리칸리그(AL) 15개 구단에서는 뉴욕 양키스(1위), 휴스턴 애스트로스(6위), 시카고 화이트삭스(7위)를 이어 4위였다.

ESPN은 "류현진이 원하는 대로 시즌 중반에 복귀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번 선발 로테이션은 좋을 뿐 아니라 (선수

층)값"다고 덧붙였다.

류현진은 지난해 6월 중순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토미존 서지리)을 받았다. 류현진은 지난해 12월29일 이른 미국행을 선택하면서 "7월만 보고 준비하겠다. 꼭 7월에 복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19시즌을 마친 뒤 프리에이전트(FA)가 된 류현진은 4년 8000만달러에 토론토와 계약을 맺었다. 토론토에서 류현진은 2020년 12경기에서 5승 2패 평균자책점 2.69로 활약했다. 2021년에도 평균자책점은 4.37로 상승했지만 14승을 거뒀다.

하지만 지난해 팔꿈치 부상으로 6경기에서 2승0패 평균자책점 5.67을 기록하고 시즌에서 빠졌다. ESPN은 2023시즌 MLB 최강 선발진을 갖춘 팀으로 뉴욕 양키스를 선정했다. 양키스는 '탈삼진 머신' 게릿 폴이 23승, 지난해 12월 시카고 화이트삭스 소속 카를로스 로토이 25승을 수확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네스터 코르테스를 20승 투수로 지목하면서 루이스 세베리노를 18승, 프랭크 몬타스를 11승 선발 투수로 적었다.

내셔널리그(NL) 최강 팀은 2021년 사이영상 수상자 코빈 번스(29·밀워키 브루어스)를 앞세운 밀워키 브루어스(2위)로 예측했다. 이어 뉴욕 메츠(3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4위), 필라델피아 필리스(5위)를 강한 선발을 갖춘 팀으로 전망했다.

유럽파 박주호·이승우가본 김민재 "건드릴 수 없는 선수"

프로축구 수원FC 제주 전지훈련장에서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27)가 화제가 됐다. 유럽 경험에 박주호(36)와 이승우(25)가 김민재의 활약에 박수를 보냈다.

수원FC에서 뛰고 있는 박주호는 일본 J리그를 거쳐 스위스, 독일에 진출한 뒤 한국으로 복귀했다. 이승우는 스페인 명문 FC바르셀로나 유스팀 출신으로 이탈리아와 벨기에, 포르투갈을 경험한 뒤 수원FC로 왔다. 유럽 무대를 직접 경험했던 이들이 현재 나폴리에서 활약 중인 김민재를 향해 찬사를 보냈다.

박주호는 7일 제주 서귀포호텔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23 동계 전지훈련 미디어 캠프에서 "김민재는 유럽에서 가장 핫한 수비수 중 하나다. 드문 상황"이라며 수비수로서 높은 평점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주호는 이어 "(이적설)링크된 팀들 자체 가 레벨이 중위권 수준이 아니라 리그를 지배하는 팀들이다. 중소 팀이나 중위권 팀은 건드릴 수 없는 선수가 됐다"고 평했다.

박주호는 또 "(김민재)가 대단한 위치에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상황"이라며 "나폴리가 챔피언스리가 아직 남아 있고 리그 우승이 확정적이라 아직 봐야 하긴 하지만 (김민재)한 획을 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승우도 이탈리아 세리에A 경험자로서 김민재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축구가 아닌 일반인,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너무 잘 하고 있다"며 "위 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민재 선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황인범 이어 황의조까지...FC서울 단기 임대의 매력은

공격수 황의조, 6개월 단기로 서울 입단
지난해 황인범 성공사례 긍정적 영향
구단도 대표팀 주전 데려와 전력 강화

지난해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에 이어 올해는 공격수 황의조(31)가 프로축구 FC서울로 단기 임대 계약을 맺고 손을 잡았다. 이에 유럽파들이 서울로 향하는 이유도 주목할 만하다.

유럽에서 뛰던 황의조는 지난 5일 서울로 임대 이적해 6년 만에 K리그로 돌아왔다.

소속팀에서의 좁아진 입지가 영향을 줬다. 지난해 여름 이적시장에서 2부리그로 강등된 지롱댕 보르도(프랑스)를 떠나 노팅엄 포리스트(잉글랜드)로 이적한 황의조는 공장 구단주가 같은 올림피아코스(그리스)로 임대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리스 리그 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공식전 12경기에 출전했지만, 득점 없이 도움 1개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설상가상 지난해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부상까지 겹치면서 경기력이 하락했고, 월드컵에서도 신예 조규성(전북)에 밀려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1차전 선발 출전 이후 교체 자원으로 밀려났다.

결국 월드컵이 끝나도 황의조의 입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춘추제(봄에 시작해 가을쯤 리그가 끝나는 일정) 리그로만 이적이 가능했던 황의조는 미국 진출과 한국 복귀를 두고 고민하다 서울행을 선택했다.

서울은 황의조에게 유럽 재진출을 위한 임시 거처로 완벽한 곳이라는 게 축구계의 시각이다.

미국 구단들의 제안이 더 좋았지만, 임대보다 완전 이적 등을 선호했고 단기보다 장기를



원했다. 자칫 꼬이면 유럽으로 다시 나갈 길이 막힐지도 모른다.

반면 서울은 이미 지난해 황인범이란 성공 사례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루빈 카잔(러시아)에서 자유계약(FA) 신분을 얻은 황인범은 유럽 내 타 리그 진출이 어려워지자 서울과 단기 임대 계약을 맺었다.

당시 부상을 입은데다 유럽 리그의 경우 한참 시즌 중이라 선부름 이적을 감행하기보다 자신을 기다려줄 팀이 필요했다.

마침 서울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하위권 추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은 황인범을 데려와 단번에 중원을 강화했고, 황인범도 부상 치료에 전념하면서 경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별도 깔끔했다. 서울과 3개월 단기 계약이 끝난 뒤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자 6월까지 계약을 연기했는데, 올림피아코스 제안이 오자 서울은 조건 없이 황인범을 보내줬다.

황의조는 그리스에서 한술밥을 먹던 황인범에게 서울 단기 임대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이번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또 황의조가 황인범과 같은 에이전트의 관리를 받는 점도 서울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이란 지리적 접근성도 유럽파 선수들이 단기 임대로 FC서울을 택하는 이유로 꼽힌다.

축구계 한 관계자는 "서울이 최근 K리그에서 어려운 시즌을 보냈지만, 연고 같은 메리트가 있다. 가족들이 서울에 있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인범이 서울에서 뛰고 다시 유럽으로 나갔다. 이는 다른 유럽 선수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 역시 짧지만 국가대표 선수를 데려와 전력을 상승시킨다는 이점이 있다. 팀에 대한 주목도도 커진다.

동시에 황인범과 황의조가 훗날 국내로 완전히 돌아올 때도 서울이 우선 선택지 중 하나로 거론될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부분도 있다.

황인범은 국내로 올 때 친정팀 대전하나시 티즌이 2부리그에 있었고, 황의조도 친정팀 성남FC가 지난 시즌 K리그2로 강등돼 국내 다른 팀으로 눈을 돌려야 했다.